



제목	Arabia and the Arabs: From the Bronze Age to the Coming of Islam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Routledge
발행일	2001. 8. 23.
저자	Robert G. Hoyland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336
ISBN 또는 ISSN	978-0415195355

**내용 요약**

아케메네스 제국하의 아라비아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의 지역에 해당한다. 캄비세스의 후계자 다리우스 대왕은 그의 치세 첫해에 베히스툰 비문내의 아라비아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후의 문헌에 그들을 언급하여 다리우스가 아라비아를 정복하였음을 나타내었고, 이는 아파다나 부조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무하메드가 이슬람교에 대한 설교를 하기 훨씬 전 아라비아 주민들은 상인들과 전사들로서 세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책에서는 선사 시대에서 이슬람의 도래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과 그 민족들에 대한 유일한 최근 조사를 담고 있으며, 50개의 사진, 일러스트 및 지도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고 있다. 저자는 비문, 시, 역사, 고고학적 증거 등 다양한 출처를 사용하여 남쪽의 고대 시바에서부터 북쪽의 사막과 오아시스에 이르기까지 아라비아의 주요 문화 지역을 탐구하였고, 아라비아의 경제, 사회, 종교, 예술, 건축 및 공예품, 언어 및 문학을 주요 주제로 조사하였다. 특히 이 중에서 아라비아의 예술은 이슬람교가 우상숭배를 금지하기 때문에 인물과 동물 형상에 대한 묘사가 없는 대신 각종 장식문양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리고 아라비아 문자는 이슬람의 예술형식에 독창성과 복잡성을 부여했고 장식예술언어의 풍부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슬람교 이념을 전파하는 특별한 부호로 사용되었다.